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제320호 2025년 2월 16일(다해) 연중 제6주일



<2006.07.12.>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요한 15,1)
<안동 가톨릭농민회의 어제와 오늘>: 한울분회

제1독서 예레미야서 17,5-8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코린토 1서 15,12.16-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복음 루카 6,17.20-26

영성체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홍보·전산
오픈카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영덕 본당 주임
안상기 미카엘 신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루카 6,20) 오늘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시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오 복음서에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한 말씀이 앞에 덧붙여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입니다. 곧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 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는 오늘 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함께 그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예레 17,7) 이어지는 말씀은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예레 17,8) 시편도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도움으로 삼는 이 자기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시편 146,5) 곧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께 굳건한 믿음을 두고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뿌리가 주님께 내려져 있어 무더위에도 가뭄에도 두려움과 걱정 없이 그 소명을 살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자비의 예수님 성화’에 쓰여 있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기도문을

자주 바치는 것도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복된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를 생각하는 마음과 삶입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일화에 보면 쌀을 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집 어머니가 수녀님에게 받은 쌀을 다시 나눠서 밖을 나갔다고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는지 물어보니 이웃에 누군가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나눠주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 “선한 이들의 삶은 살아있는 해석”이라는 대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말씀과 함께 그 어머니의 삶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주님 말씀을 삶으로 해석해 준 한 본보기이라 생각됩니다.

한울분회(1988)

표지 사진 설명



한울분회는 상주시 화동면 전역에 회원들이 산재해 있으며 화동공소를 중심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이 시작되었고, 이를 모태로 1988년 한울분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의성 점곡분회와 과수위원회와 함께하며 병해충 방제시기와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생육기에 공동 산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과수농가들의 연찬회를 주최하는 등 친환경 과수농사에 대한 연구와 교류를 활발히 하였습니다. 회원들 공동으로 과일즙 가공공장(한울식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포도순 따기, 포도 따기 등 도·농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 때는 분회원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가능 지향에 맞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회원 : 9가구- 최병수 요셉·김명희 도로테아, 권오수 이시돌·김순영 카타리나, 허균 베네딕도·정재복 엘리사벳, 조용학 시몬·김갑남 릿다, 한동섭 황정자, 이홍재 치릴로, 김기만 요한·이현정 레지나, Sr.이미혜 로사리아, 이순보 도미니코

※ 2025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에 따라 가톨릭 농민회의 주요 사건과 생명 농업의 생산(분회)-판매(우리농 매장)-소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다룹니다.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토대로 목상글을 담습니다.

호야와 두봉 주교님 (3)

허태임 플로라

식물분류학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연구원
《허태임의 초록목록(김영사,2022)》을 썼다.

호야와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주교님은 내가 일하는 수목원에 다녀가셨다. 기왕이면 주교님 오실 때 날씨가 맑기를 바랐다. 그날은 종일 추적추적 늦가을 비가 내렸다. 기온이 꽤 떨어진 데다 비까지 오니 체감 온도는 훨씬 낮게 느껴졌다. 침엽수는 평소보다 위풍이 있었고 노랑거나 붉게 핀 국화는 저마다 잎과 대비를 이뤄 알록달록했다.



<©안동교구 사목국>

영덕관절을 다친 후로 걷는 게 불편하신 주교님을 나는 전기 패트롤카로 모셨다. 수목원 관람객들을 피해 이쪽과 저쪽으로 핸들을 돌리며 말했다. 주교님 오시는 날 하필 날씨가 궂네요. 싱긋 웃으며 주교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비 오는 풍경을 볼 수 있고 나무는 웅장하고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으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뿐이지요.

같은 마음이라 다행이었다.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비나 눈이 오면 오는 대로 수목원은 다른 매력이 있다. 식물원에서는 어떤 날씨, 어느 계절이건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수목원을 둘러보며 주교님은 어릴 때 이야기를 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꽃 농사를 지었어요. 말하자면 원예사였지요. 아버지는 배를 타고 영국에 가서 원예 기술을 배워왔어요. 집은 늘 꽃으로 가득했지요. 수목원 풍경은 내게도 익숙합니다. 옛날 고향에서의 기억이 많이 떠올라요.

나는 생각했다. 주교님이 자란 오를레앙 고향 집에도 호야가 있지 않았을까. 동남아시아에 살던 호야는 1802년 영국으로

건너가 원예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주변 국가로도 그 재배 열풍이 빠르게 번졌으니.

주교님과 수목원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동안 나는 부쩍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수목원 진달래원을 지날 때 내가 말했다. 우리 할머니는 진달래를 두견화라고 불렀어요. 살아 계신다면 주교님보다 세 살 위 누나예요. 두견새는 두견화를 좋아해서 쫓아다닌다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할머니 손에 컸다. 그이가 가꾸던 화단과 텃밭에서 처음 식물을 배웠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옛날이야기는 지금의 그 어떤 조희수 높은 영상물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적어도 어린 내가 느끼기에는 그랬을 거다. 같은 내용도 그날그날 분위기나 어조를 달리 해서 전혀 다르게 구술하는 신비한 능력이 할머니한테 있었다. 나는 결말을 다 알면서도 다시 또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너무 빨리 끝나면 어쩌나 속으로 걱정하면서 최대한 천천히 말해달라고 할머니 품에 파고들며 안기던 순간이 있었다. 다 지난 일이지만 살면서 더욱 또렷해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

내가 학부 졸업을 앞두었을 때 할머니는 아프기 시작했다. 딱히 병명이 있는 건 아니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셨다. 늙어서 그런 거라고 했다. 나는 그때 직업도, 집도, 차도, 모아놓은 돈도 없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지 석 달 만에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할 수 없는 것만 많은데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지 나는 너무 억울했고 무한히 슬펐다. 나는 나 자신을 원망하며 엉엉 울었다.

죽음에 대해서 주교님께 몇 번 여쭙 적이 있다. 대답은 늘 한결 같았다. 그저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오늘 저녁 평안히 잠들 수 있음에 그걸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분 뜻에 따라 한평생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으니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면 그만이지요.

두봉 주교님 이야기를 4주에 걸쳐 전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세례자 요한 7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항상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르단강 세례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음에도(요한 1,33),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다시 확인하려 합니다. 요한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메시아는 심판자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루카 3,9)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워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3,17)

그렇습니다. 요한은 종말론적 심판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요한은 그 심판의 때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현재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자비의 때입니다.

함신부가 들려주는
성경 인물 이야기



발령일자: 2025년 2월 6일(목)

부임일자: 2025년 2월 20일(목)

사제 인사이동

성명(세례명)	가시는 곳	계시던 곳
남정홍 (스테파노) 신부	문경 주임	옥산 주임
강문석 (대건 안드레아) 신부	옥산 주임	서울대교구
최형규(미카엘) 신부	서울대교구	청송 주임
김재형(베드로) 신부	사목국 홍보·전산 담당	영양 주임
남상우 (토마스 모어) 신부	가톨릭상지대학교 겸 교구50년사 편찬위	사목국 홍보·전산 담당
박석일(베드로) 신부	영양 주임	문경 주임
박철현 (가브리엘) 신부	청송 주임	휴양

단체·위원회 담당신부 임면 임기: 2025년 2월 1일-2027년 1월 31일

단 체		임	면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 위원회 겸 유사 종교 대응 담당		류한빈 (안드레아) 신부	이희정(요셉) 신부
가정사목 위원회		김종길 (제오르지오) 신부	최장원 (라우렌시오) 신부
교정 사목	경북 북부 제3교도소	박철현(가브리엘) 신부	최형규(미카엘) 신부
	직업훈련 교도소 (영양)	박석일(베드로) 신부	김재형(베드로) 신부
레지오 마리아에 교구 평의회		김재형 (베드로) 신부 (부)	남상우 (토마스 모어) 신부 (부)
꾸르실료		김지성 (안토니오) 신부 (부)	김유강 (시몬) 신부 (부)
부부일치운동(M.E)		김종길 (제오르지오) 신부 (부)	최장원 (라우렌시오) 신부 (부)
가톨릭 간호사 협회		이형철(바오로) 신부	이요람(요람) 신부
가톨릭 문인회		김종섭(갈리스토) 신부	신대원(요셉) 신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아름다운 자연과 삶



목성동 본당 강은희 마리아

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게 있습니다.
제 삶의 중심, 바로 신앙입니다.
첫째 딸 둘째 딸은 모태신앙이지요.
어렵거나 힘들때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힘든 것은 잊어버리고, 버틸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콜로새서 2,6)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3%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등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꺽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능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젤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054-571-2285, 054-572-0027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클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당동)
T.054-633-6762

한국금거래소 상주점

골드바, 실버바 / 선물용 / 순금기념품
민물수있는순도, 최고가 고금매입
신속조 요안나
상주시 상산로 277
T.054-536-5000



성진사우나

대표 김용숙 스텔라
송우근 바오로
문경시 중앙로 212
T.054-553-0059

아름다운얼굴피부과의원

피부질환,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여드름, 아토피, 탈모, 비만,
검버섯, 점, 제모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중원 요셉
T. 054-553-2079

대게 좋은날

대게, 회 식당 및 숙박운영

대게, 킹크랩, 랍스타, 찜&코스 요리, 회, 물회
다양한 메뉴, 맛있고 입이 즐거운 여행! 숙박까지
이복도 요셉, 김경숙 마리아
010-2520-1926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37
T.054-732-8357

주보 광고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문 의: 사목국

054-858-3114~5
sa3119@nate.com

세인트 메리 힐 커피

St. Mary Hill Coffee
은총의 동산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에 사랑을 채우고 가세요.
전현준 시메온
경북 문경시 농암면 청화로 941
T.010-4310-2353

안동제일안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 안성형, 드림렌즈
원장 정재엽 토마 / 원장 서의태 임마누엘
안동시 대안로 107 신시장 태평양약국 2층
T.054-855-7582~3

+ 교구 봉안 경당(납골당)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풍로 983-41
분양 및 예약, 묘지 이장 소개
위령미사- 매주 토요일 15시
T.054-655-1781, F.054-655-1782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시자율모집: 1. 15(수)~ 2. 28(금)
주간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바이오제약과, 글로벌뷰티케어과
주말반학과: 사회복지과, 전기과,
전산세무회계과,
야간학과: 경영과, 사회복지과,
하이브리드자동차과,
노인건강지도과

입학문의: 851-3021 <https://www.csj.ac.kr>

산후관리사 취업연계

일 정: 3. 4(화)~ 4. 4(금) (총 23일 138시간)
시 간: 09:30~ 16:00 (월-금)/ 중식제공
대 상: 미취업자(취업가능자)
혜 택: 무료교육, 훈련수당 20만, 취업연계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8

생성형 AI 활용 과정 무료 교육

일 정: 3. 15(토), 22(토) (총 2일 8시간)
시 간: 09:00~ 13:00
내 용: 생성형 AI 프롬프트 작성 및
나만의 음악, 이미지 생성, PPT제작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추가모집

대 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 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추가 모집: 2. 28(금) 까지
문 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경북전문대학교 2025학년도 작업치료과 신입생 모집

모집 기간: 2. 28(금) 까지
대 상: 고등학교 졸업자, 성인학습자
혜 택: 졸업 후 취업 100%, 영주시지원금
50~100만원, 만학도장학금50만원
입학 문의: 054-630-5267

2025년 제29차 빈첸시오회 정기총회

일 시: 2. 23(주일) 15:30
장 소: 송현동 본당 1층 회의실
준비물: 기도서, 개인 텀블러

수 도 회 · 피 정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고전 읽기
제 목: 나를 이끄시는 분(월터J.취제크 지음)
일 시: 2. 22~ 3. 22
(매주 토요일 15:30~ 17:00)
장 소: 안동 바오로딸 서원
회 비: 10,000원 (책은 본인이 구입)
문 의: 010-2894-7020

시니어를 위한 색칠하기
제 목: 성경 속 식물 컬러링 북 색칠하기
일 시: 2. 25~ 3. 18
(매주 화요일 16:00~ 17:30)
대 상: 65세 이상
장 소: 안동 바오로딸 서원
회 비: 30,000원 (책은 본인이 구입)
문 의: 010-2894-7020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 시: 3. 15(토) 11:00~ 16(일) 16:00
대 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분들
장 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 비: 80,000원 (사전접수자만 피정가능)
문 의: 010-5490-5345

재속 맨발 가르멜회 상주공동체 지원자 모집
대 상: 만 55세이하의 건진성사 받은 교우
모 임: 매월 첫째 주일(상주가르멜 여자수도원)
문 의: 010-5489-3258/ 010-5094-2914

상주가르멜 여자수도원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프랑스 순례단 모집
(괄래 신부님 여정을 따라서)

일 자: 8. 24(주일)~ 9. 4(목)
(선착순 30명, 550만원 예상)
일 정: 파리, 스트라스부르그, 마르세유,
리지외, 몽쌍미셸,
수도원(트라피스트, 시토회,
몽쌍오필), 그리옹(고향마을),
모백 및 블로박 수녀원(무덤)
신 청: 마원 진안리 성지 010-9944-0145

교구장 동정



2월 16일(일) 초등부 복사단 연수
2월 17일(월) 사제회의,
사제평의회
2월 19일(수) 성지사무장 연수
2월 21일(금) 학교법인 이사회
2월 23일(일) 가톨릭농민회
분회방문(쌍호분회)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2월 17일 우석민 로만 신부

축하합니다

서품축일

2월 17일 전달수 안토니오
이상복 비오
공한영 고스마 신부

교 구

사목국 공소탐방

일 시: 2. 16(주일) 14:00
장 소: 영양 본당 청기공소

테마가 있는 성경 강좌

일시: 2. 21(금) 19:30
장소: 갈전 마티아 본당
준비물: 성경, 필기구, 참가비 5000원

구역장·반장 교육(안동·의성 지구)

일 시: 2. 22(토) 13:30~ 17:00
장 소: 교구청
준비물: 필기도구, 개인 물통
참가비: 1인 5,000원
신청 마감: 2. 12(수)

제 단 체

2025년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정기총회

일 시: 2. 22(토) 14:30
장 소: 점촌동 본당 교리실(소성당)
일 정: 접수, 시작 예절, 정기총회,
파견 미사 후 저녁 식사
참가 문의: 010-3071-6347(사무국장)
010-4539-8288(부위원장)
* 각 본당 정평위원은 꼭 참석 바랍니다.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대 상: 자신과 위기 영혼의 영적돌봄을
원하시는 분
장 소: 교구청(새봄 CPE센터)
기 간: 3. 19(수)~ 6월 말(12주간)
매주 수요일 12:30~ 18:00
교육비: 40만원(자부담 30 + 교구지원 10)
문 의: 황영화 신부(010-5119-1158)
한국CPE협회 홈페이지: www.kacpe.com